

NEWS & PLUS

» 주승용 국회의원 주최 「삼풍백화점 붕괴 10년 지금은 안전한가?」세미나서 우리협회 최재천 명예회장 “전문가의견 존중하는 환경조성 시급” 의견 밝혀



주승용 국회의원과 단국대 부설 리모델링 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삼풍백화점 붕괴 10년, 지금은 안전한가?」건설안전 정책 세미나 2005 행사가 국회건설교통위원회와 대한주택공사 주관, 건설교통부, 중앙일보, mbc등의 후원으로 지난 6월28일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김원기 국회의장, 김한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한행수 대한주택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승용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발생 1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건설안전정책을 점검해보는 세미나와 함께 사진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소

감을 밝히고, 사망 502명, 실종 6명 그리고 93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참사로서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단일사고로는 가장 큰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온 최대의 비극이었던 1995년 6월 29일 참사를 부끄럽고 가슴 아픈 과거를 회상했다. 그날 이후 안전불감증에 대한 반성과 함께 건설안전 정책 전반에 대한 각종 안전정책을 수립하며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지도 10년이 된 이 시점에서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 과연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졌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주승용 의원은 이번 세미나와 사진전을 통해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열매를 맺어, 건설 정책을 비롯한 사

회 각 분야의 안전의식이 보다 확고히 자리잡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정란 단국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의 「삼풍백화점, 왜 무너졌나?」신동우 이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의 「삼풍이후 건설안전정책의 변화와 향후과제」란 주제 발표가 각각 있었다.

이어진 토론에서 우리협회 최재천 명예회장은 이러한 세미나가 1회성 행사에 머물러선 안되며, 대형사고 예방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현행 법규상 안전진단 등 재해예방 실무를 국가 공인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학·경력자도 참여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기술사, 기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환경이 아쉽다고 의견을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오후 1시에 개최된 이날 세미나는 오후 6시가 넘도록 이어져 안전의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 삼풍사고의 교훈과 건설안전의 과제 세미나 열려

건설산업비전포럼 주최 '삼풍사고의 교훈과 건설안전의 과제' 세미나가 한미파슨스 주관, 중앙일보 후원으로 6월24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건설산업비전포럼 김건호 공동대표의 개회사와 한미파슨스 김종훈 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상지대 홍성태 교수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교훈과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 분석', 군산대 안홍섭 교수가 '삼풍백

화점 붕괴사고의 원인에 대한 재조명', 박홍신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본부장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한 제도적 장치의 개선 성과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지정토론 및 객석토론 등 건설안전을 위한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다.

»» 제4차 아시아-태평양지구 건설안전국제회의 개최

한국산업안전공단 주최 제4차 아시아-태평양지구 건설안전국제회의

의가 6월29일 롯데호텔 잠실 크리стал룸에서 성대히 개최 되었다.

제1주제 건설안전경영시스템 추진현황 및 실태에 대해 일본, 말레이시아, 타이완, 싱가포르, 홍콩 등에 이어 우리나라의 발표가 있었으며, 이어진 제2주제에서는 공사중 추락, 낙하배래, 감전 및 붕괴 방지 대책 등이 발표 되었다. 우리협회 박병관 부장은 '협회가 나아갈 길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건설업 등록기준이 강화된다.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건설업체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폐지됐던 사무실 및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제도가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다시 도입된다. 이로인해 앞으로 건설업에 등록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일정 금액의 현금을 보증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초 공포한 뒤 6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등록시 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금성 담보를 보증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고 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계약보증, 하자보증 등 건설보증을 할 수 있음을 공제조합과

»» "규제강화 된 안전정책 추진할 때"

우리협회 박구준 부회장 건설뉴스 주최 좌담회서 의견 밝혀



삼풍참사 10주기 추모 건설/시설안전 선진화를 위한 특집좌담이 6월22일 과천 그레이스호텔서 우리협회 박구준 부회장을 비롯해 김영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기술사업단장, 이규석 대한

시설물유지관리협회 부회장, 이동현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이부영 건설교통부 안전정책과 행정사무관, 이승재 건설안전관리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광년 건설뉴스 편집국장의 진행으로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은 "안전부문 R&D투자 대폭 확대 및 예산수립부터의 유지관리비 책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우리협회 박구준 부회장은 시특법·건설기술관리법·재난관리법 등에 산재돼 있는 안전관련 업무수행 및 법적 제재조치들의 총괄적 안전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 업체난립과 전문가 육성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안전체계 확립 및 관리를 위해 시설물 이력관리 및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기술력 향상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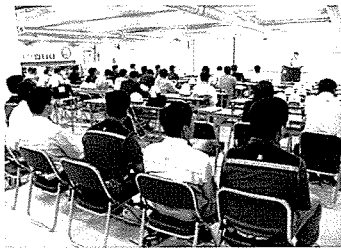
NEWS & PLUS

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이 확인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다시 도입된 것은 건설업체의 보증서 발급을 유도, 건설보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자본금 유용 및 가장 납입을 방지, 업체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건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낙찰후 공사전매, 일괄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으로 이득을 취하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해 등록기준에 사무실 보유기준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일반 건설업의 경우 33~50㎡, 전문건설업은 12~20㎡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문건설업중증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사단법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 위탁, 수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삽입됐다.

기존 건설업체는 시행령이 발효하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강화된 기준을 갖춰야 한다.

» 중소규모 현장소장 대규모 현장 견학 - 서울강남지방 노동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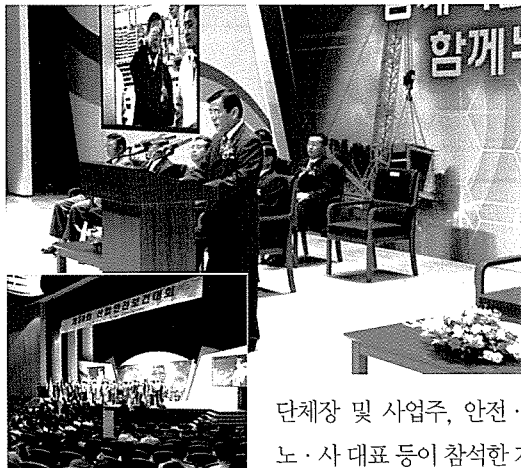


서울 강남지방 노동 사무소는 6월 10일 관내 중소규모 건설현장 소장 7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삼성 서초 프로젝트 현장 견학 및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 강남지방노동사무소 자체사업인 '대기업·중소기업 건설현장 연계프로그램'으

로 중소규모 현장소장들로 하여금 이러한 대기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토록 함으로써, 중소 건설현장에 도입해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실시된 첫 견학을 시작으로 올 10월까지 5회에 걸쳐 매월 실시될 이 행사에 대해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 이규환 산업안전과장은 "대기업·중소기업 건설현장 연계 프로그램은 중소형 건설현장 소장들이 대기업 현장 견학을 통해 우수한 안전관리활동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사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중소규모 현장 안전 활동에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행사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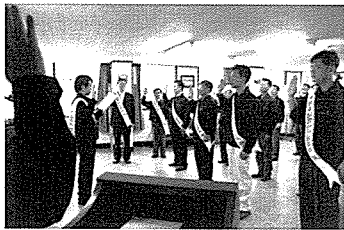


산업재해예방에 공로가 큰 산업안전보건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산재예방에 관한 기술·정보교류, 국제심포지엄, 세미나, 전시회 등을 전개함으로써 전 국민의 자율 안전 실천 정착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가 6월 29일부터 7월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열렸다.

7월 1일 개최된 제38회 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는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박길상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환경보 우리협회 회장을 비롯해 재해예방 및 유관기관 단체장 및 사업주, 안전·보건관계자, 노조간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전국 사업장 노·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엑스 오디토리움 홀에서 성대히 개최 되었다.

»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우리협회는 지난 6월 4일 한경보 회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6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가졌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위해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토록 하는 행사로 매월 4일 실시되고 있다.



» 보험범죄 기승

산재보험 부당 수령 신고포상금제도 실시 산재보험의 허점을 이용한 보험급여에 대한 부당 수령사례가 지능화됨에 따라 보험범죄 예방을 위해 보험급여 부당 수령을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5월부터 사회적으로 만연된 모럴해저드와 지능화된 보험범죄를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조기에 발견코자 산재보험 부당 수령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그동안 산재보험 부정수령은 친족들이 운영하는 영세규모 사업장 등에서 재해경위, 임금 등을 허

» 제 23회 국제안전기기 전시회 성황리 열려



한국산업안전공단 주최 제23회 2005 국제안전기기 전시회가 한국산업안전공단 박길상 이사장과 우리협회 한경보 회장 등 많은 관계자

가 참석한 가운데 6월29일 코엑스 1층 태평양홀에서 개최되었다. 7월2일까지 4일간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산업현장에서 무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 에어 쿨 자켓과 얼음조끼 등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으며, 장마철에 발생하기 쉬운 감전재해예방용 전기안전용품도 전시되었다. 또한 칼에도 잘리지 않는 특수장갑, 가정이나 식당에서 간단하게 가스누출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가스검지기, 어린이·노약자를 위한 안전용품도 선보였다. 올해로 23회째인 이번 전시회에서는 컴퓨터 사용과 생산설비의 자동화에 따른 반복 작업의 증가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기기와 제품들이 전시돼 내실을 기한 전시회가 되었다는 평을 받았다.

한경보 회장은 전시장을 둘러본 후 "참관하는 안전보건관계자, 시민, 학생 등이 안전기기와 시설물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 안전의식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전시회를 높이 평가했다.

위로 조작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모은행에서 총무과장, 산재보험 담당자, 노무사 등이 서로 공모해 산재보험을 편취하려는 사건이 발견되는 등 산재보험이 보험사기에 노출된 사례가 발생, 이를 적극 예방키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신고대상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험에서 보험급여를 수령하거나 보험가입자 허위신고 또는 증명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가 해

당되며 포상금은 신고된 시점의 전체 보험급여의 100분의 3이 지급되는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이며 가까운 공단지사(1588-0075)에 신고하면 된다.

이와관련 방용석 이사장은 "보험범죄 예방을 위해 처음 실시되는 포상금 제도인 만큼 국민의 적극 참여와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NEWS & PLUS

» 신도시가 확 달라진다.

앞으로 우리나라 신도시도 계획단계부터 『푸른 숲(녹지벨트, Greenbelt)』, 『깨끗한 공기(대기벨트, Whitebelt)』, 『맑은 물(물벨트, Bluebelt)』 계획이 상호 연계되어 선진국 수준의 아름답고 건강하며 쾌적한 도시로 조성된다. 또한 Social Mix 차원에서 다양한 연령층과 소득계층이 함께 어우러져 지역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가 적절하게 섞여지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간에도 적절한 혼합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을 제정하여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밝힌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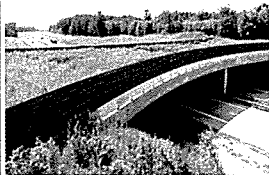
① 녹지·대기·물 벨트를 상호 연계하여 구축

■ 녹지벨트(Greenbelt) 구축

앞으로 신도시내의 경사도 30%이상/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생태자연도 1등급인 토지는 절대 보존한다. 도시의 녹지벨트가 생물이동통로, 바람길, 물순환체계, 경관축 등과 상호 연계되도록 생태도시로서의 공원녹지체계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친수형 생태공원】



【외국의 생태교량】

■ 대기벨트(Whitebelt)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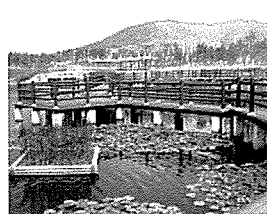
도시내 대기벨트가 구축될 수 있도록 주풍향을 고려하여 단지 및 건물을 배치하고 공원녹지와 연계시켜 바람길과 저온냉대지역을 확보하여 도심의 열섬현상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도로변 완충녹지에는 환경정화 수종을 식재하여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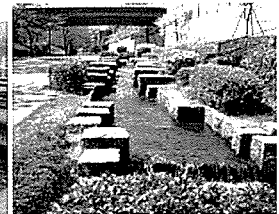
【바람길을 고려한 단지 설계】

■ 물벨트(Bluebelt) 구축

실개천 주변에 폭 5m이상 생태녹지대를 확보하여 생태수로가 되도록 하고, 단지내 인공 실개천은 폭포·분수·호수·저류지 등과 연계하여 물길연계망(blue network)을 형성하도록 하였으며, 빗물 활용,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우수지 도입 등 신도시의 물순환체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공시설은 투수성포장을 원칙으로 하고 단지내 면적의 30~40%를 투수성 재료로 포장하도록 하였다.



【우수지 조성사례】



【수변공간 조성사례】

② 각 계층이 조화롭게 커뮤니티를 형성하도록

Social Mix 추진

빈부격차에 따라 나타나는 주거지 분리·지역간 갈등 및 저소득층의 집단화에 따른 슬럼화 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형평을 고려한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앞으로는 단독주택 또는 고급연립주택 선호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독주택은 20~30%, 연립주택은 5~10%, 공동주택은 60~75%의 비율로 공급될 수 있도록 주거용지가 배분되며, 평형별 배분에 있어서도 저소득층을 고려하여 60㎡이하 주택을 25~35%이상 확보하여야 하고, 소유관계별로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각각 70:30의 비율로 배분되도록 혼합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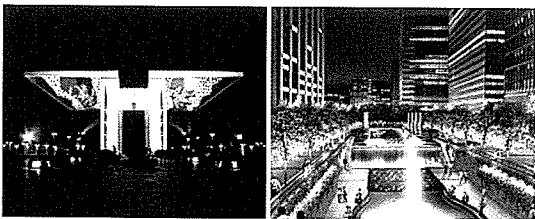
**③ 역사·문화적인 지속성이
확보되는 도시**

신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역적·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개발테마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신도시 개발과정에 관한 기록과 자료를 정리하여 개발백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도시권 단위의 문화시설은 상업용도와 연계한 복합문화터미널로 계획하고, 생활권단위의 기초 문화시설은 자치센터, 교육·정보·청소년 시설과 연계하여 문화전달 플랫폼의 개념으로 계획하도록 하였다.

**④ 야간경관 개선으로
밤 거리를 아름답게...**

공공건축물·역사적 건축물·분수·하천 등 중점적으로 정비할 야간경관을 선정하고, 도시 랜드마크 또는 주요도로에서 시선이 집중하는 곳에 위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야경을 연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요 상업업무지역에서는 네온사인이나 쇼 윈도우 조명을 통하여 활기찬 야경을 연출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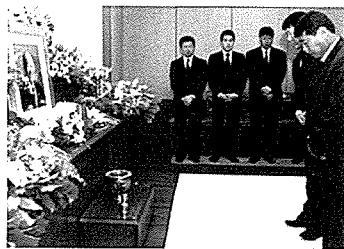
【조형물 활용 야경】

【하천활용 야경】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330만㎡(100만평)이상 규모로 택지개발사업 또는 기업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건설되는 모든 신도시에는 동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미 주택분양중인 화성 동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도시에는 이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며, 판교도 당초 계획이 크게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번에 제정된 『신도시계획기준』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우리나라 신도시도 앞으로 도래할 1인당 GNP 2만5천불 시대에 걸맞게 한 차원 높은 모습으로 변모하여 해외 선진국 못지않게 아름답고 살기좋은 도시로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 현대산업개발 정세영 명예회장 별세



한국 자동차산업의 역사로 불리던 정세영(鄭世永)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이 5월 21일 별세했다.

향년 77세. 1928년 강원 통천군 송전면에서 태어난 그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넷째 동생으로 1957년 현대건설에 입사해 현대그룹과 인연을 맺었다.

1967년 현대자동차를 설립하고 초대 사장을 맡은 뒤 1974년 국내 최초의 고유 자동차 모델인 포니 승용차를 개발해 '포니 신화'를 만들었다. 유족으로는 부인 박영자(朴榮子, 69) 씨와 장남 몽규(현대산업개발 회장), 딸 숙영, 유경씨가 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3억원 미만 공사 기술지도대상 제외

건설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최소 건설공사 규모를 공사금액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된다. 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앞으로 기술지도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6월3일 밝혔다.

이와함께 이번 개정령 내용을 보면 자율안전관리업체 이외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주중 최근 1~2년간 산업재해 발생률이 양호한 건설업체에 대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주기를 기존의 3~6개월 1회

NEWS & PLUS

에서 6~12개월 1회로 완화된다. 또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총연장 50m 이상 터널공사 및 200m 이상 교량공사에 대해 재해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진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령을 통해 노동부는 기술지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소규모 공사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점검 대상 공사를 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술지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복조사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주 가운데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률이 양호한 자율안전관리업체에 대해서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을 면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지적

이 있어 왔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기술지도 및 안전보건진단대상사업장을 조정하고 산업재해 발생률이 양호한 건설업체에 대해 사전안전관리계획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주기를 완화하는 등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협회창립 16주년 기념행사 갖고 제2도약 다짐



우리협회는 지난 6월21일 창립 16

주년 기념행사를 협회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최재천 명예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전 임직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한경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1985년 설립된 이래 인간존중을 최우선으로 건설안전을 위해 봉사하고, 선진화에 기여해온 우리협회 전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초일류 건설안전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원 및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사원에 대한 표창도 있었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관련기사 p22,23)

- | | | |
|---|---|------------------|
| 수 | } | · 원지영 부장(기술지도부), |
| 상 | | · 최용준 부장(건축부), |
| 자 | | · 박병일 차장(토목부) |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회원 및 직원동정

▶ 신규가입(2005. 5, 6월)

- | | | | | |
|-------|---------|---------------|----|-----|
| · 이재익 | 05.6.08 | (주)선엔지니어링 | 부장 | 기술사 |
| · 최정현 | 05.6.09 | 한국재난연구원 | 과장 | 기술사 |
| · 조규영 | 05.6.10 | (주)동화종합건축사사무소 | 상무 | 기술사 |
| · 서지원 | 05.6.20 | 한신공영 | 과장 | 기술사 |
| · 김영중 | 05.6.21 | 삼부토건 | 차장 | 기술사 |

- ① 회원 및 직원동정
- ② 조직도
- ③ 기술자격증 보유현황
- ④ 협회 업무 소개
- ⑤ 기술지도부 업무 안내
- ⑥ 회원가입안내

조직도



기술자격증 보유현황

구분	건설 안전 기술사	건축 시공 기술사	토목 시공 기술사	토질 및기초 기술사	건축 구조 기술사	토목 구조 기술사	건축사	공학 박사	건축품 질시험 기술사	건설 안전 기사	건축 기사	토목 기사	건설재 료시험 기사	계
기술 지도부	3	0	0	0	0	0	0	0	0	5	3	1	0	12
건축부	3	1	0	0	1	0	0	1	0	7	10	0	0	23
토목부	4	0	3	2	0	1	0	0	0	1	0	4	1	16
기획 (교육)	8	3	2	0	0	0	1	0	1	1	1	0	0	17
계	18	4	5	2	1	1	1	1	1	14	14	5	1	68

협회 업무 소개

■ 안전진단

▶ 안전점검

-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 대 상 : 동법 제2조에 의한 1,2종 시설물
 - 정기점검 : 반기별 2회
 - 정밀점검 : 2년 1회 이상(건축물 3년마다, 수중항만시설 4년마다)

▶ 초기점검

- 법적근거 : 영 제46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영 제46조의 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
- 과업범위 : - 문제점 발생부위 및 붕괴유발부재 또는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등의 중점유지관리 사항을 파악한다.
- 향후의 점검·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 설정
- 공사목적물의 외관을 자세히 조사하는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 대형공사의 정기안전점검

- 법적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 대 상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의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 정밀안전진단

-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 대 상 : 공사완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1종 시설물
정밀점검결과 정밀안전진단 판정시

리모델링 시행시 공사착수 전 안전진단
노후화된 교량 및 터널, 항만, 수리시설의 안전진단

▶ 재건축을 위한 노후 불량주택진단

- 법적근거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 동시행령 제42조의 2, 제44조 / 동시행규칙 제32조의 2
- 대 상 : 재건축을 위한 노후불량주택

▶ 공동주택 하자진단

- 법적근거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 3 / 동시행규칙 제11조의 2
- 대 상 : 1,2종 시설물을 제외한 공동주택

기술지도부 업무 안내

▶ 재해예방 기술지도

-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4항)
 - 공사금액이 2억원 이상~120억원 미만의 건축, 플랜트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
 - 공사금액이 2억원 이상~150억원 미만의 토목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기술지도 대상 제외 사업장

-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건설공사
- 전국 도서지방(단, 제주도 제외)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영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기술지도를 체결치 않은 대상사업장의 제제사항

1. 기술지도계약 미 체결시 : 안전관리비 20% 환수(법 30조 1항)
2. 기술지도계약 지연 체결시 : 조정금액만큼 환수

3. 산안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사전입찰자격심사(P,Q)시 감점 : 최고 -3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1조

· 대 상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

2) 최대 시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

3)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4) 터널공사

5) 다목적 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건설 등의 공사

· 별 칙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미제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진단

·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 대 상 : 1) 중대재해사업장 2) 50m 이상 터널공사
3)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4) 200m 이상 교량공사

· 별 칙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안전컨설팅

· 대 상 : 건설회사 전사업장

· 업무 내용 :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2) 현장의 안전관리 실시 3) 안전교육 실시

■교 육

· 종합안전관리 및 안전경영진단 본사 및 현장을 망라 무재해 도달을 위한 안전관리 대행 또는 지원·지도

- 안전관리체계 정립 위한 제반지원

- 안전교육 교재개발 또는 강사지원

· K-OHSMS 18001 인증 심사원 양성과정

- 인증심사원 시범연수기관으로 지정(2001. 6. 19)

-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지정

· 안전관리 전문가 과정 - 안전관리전문가 양성교육

회원가입안내

■ 회비가입 및 연회비 납부안내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안전기사, 산업기사 여러분의 회비가입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안전진단 및 점검,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및 컨설팅, 건설안전교육 등으로 국내 최정상급의 건설종합안전전문기관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의 회원으로서 건설안전의 선두주자가 되십시오.

■ 가입안내

●회비 : 입회비 100,000원, 연회비 50,000원, 종신회원 500,000원

●문의 : 회원실 TEL)02-3444-4570 FAX)02-3444-4855

●온라인 : 하나은행 210-071537-01204, 예금주 :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회비 미납 회원분들께서는 미납된 연회비를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회원 여러분의 자택 및 직장 주소, 연락처 변경사항과 기타 공지사항 등을 바로 알려 주시면 협회지 '협회 소식'란에 게재하여 회원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하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